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 위안화 국제화 정책 점검과 시사점

발행인 : 강인수
편집주간 : 김동열
편집위원 : 주원, 이부형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4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02-2072-624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위안화 국제화 정책 점검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중국 위안화 국제화 가속	1
2. 위안화 국제화 정책 평가와 전망	2
3. 시사점	11

< 요약 >

■ 중국 위안화 국제화 가속

최근 위안화가 달러, 유로화, 파운드, 엔화에 이어 세계 5대 지급결제 통화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지급 결제 통화 가운데 위안화 비중이 2013년 5월 0.8%에서 2015년 5월 현재 2.2%로 늘어났다. 더욱이 중국 정부는 '2009년 위안화 국제화를 공식화한 이후 무역결제 확대, 자본거래 및 외환거래 개방, 금융안정성 강화 등 국제화 이행을 추진하면서 향후 위안화 국제화 가속이 예상된다.

■ 위안화 국제화 정책 평가와 전망

위안화 결제, 자본거래 개방, 외환거래, 위안화 역외인프라 구축 가속, 위안화 국제통화 진입가능성 확대 등 5가지 측면에서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정책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안화 무역 및 투자 결제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09년 위안화 무역결제 허용', '11년 무역결제 및 직접투자 개방' 등으로 위안화 국제화 기본 여건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위안화 무역결제 규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480배 급증, 위안화 직접투자(IN-OUT) 규모는 2012년 1/4분기부터 2015년 1/4분기까지 6배 증가하면서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었다. **둘째, 중국내 외국인의 금융자산도 확대되고 있다.** 최근 QFII, RQFII 등 외국기관투자자의 중국내 투자 쿼터를 지속 확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 본토 기관투자자의 해외진출도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외국기관 및 개인의 위안화 주식 및 채권 보유액과 위안화 대출 및 예금 자산의 총규모는 2013년 12월 2.9조 위안에서 4.4조 위안으로 약 1.5배 증가하였다. **셋째, 외환시장에서의 위안화 거래 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2008년 이후 위안화 통화 스왑은 총 28개국, 3조 1,182억 위안으로 확대했을 뿐 아니라, 덤섬본드 발행, 달러 대비 위안화 변동폭 확대 등 지속 개방정책을 진행하면서 외환 거래 여건을 개선해 왔다. 이에 따라 전체 통화 중 위안화 채권 발행 비중은 2009년 0.1%에서 2015년 3월 0.6%로 미약하지만 소폭 개선되었다. 더욱이, 장외시장에서도 위안화의 외환스왑 등 거래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넷째, 위안화 역외 인프라 구축도 가속하고 있다.** 중화권을 중심으로 역외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을 마련하였으나, 2014년부터 유럽, 북미 등 지역으로 확대하여 2015년 5월 현재 총 16개 국가에 설치했다. 더욱이,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회원국을 총 57개국을 확보하는 등 위안화 역외 수요 확대 여건을 개선하였다. **다섯째, 위안화의 SDR 편입 조건 개선 등 국제통화 진입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세계 GDP 대비 비중 및 세계 무역 비중은 각각 2010년 9.2%, 9.7%에서 2014년 13.4%, 11.3%로 확대되는 가운데 2013년 7월 상해자유무역지대內

에서 위안화 자유태환을 일부 허용하는 등 올해 SDR 편입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중국 위안화가 SDR에 편입시 SDR 통화 중 약 1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위안화 결제, 자본거래, 외환거래, 역외인프라 구축, 국제통화 진입 등 5가지 측면을 분석한 결과, 위안화 국제화가 가속되고 있다. 중국 본토와 역외시장에서 위안화 자산 수요가 확대되면서 위안화는 결제통화에서 투자통화로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위안화 청산은행 및 RQFII 부여 확대, SDR 편입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보유통화로서의 지위도 격상되고 있다.

< 위안화 국제화 점검과 전망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작성.

■ 시사점

최근 중국의 위안화가 무역결제 통화 뿐 아니라 SDR 편입 여부에 따라 투자 및 비축 통화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에 따른 적극적인 기회활용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역외 위안화 금융허브 마련을 위한 전략 구상이 필요하다. **둘째**, 위안화 채권 개발 등 금융산업 경쟁력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셋째**, 한중간 금융 및 통상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시스템 재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AIIB 출범 등 중국의 新실크로드 전략을 활용해 아시아 인프라시장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의 위안화 수요 확대에 따른 중국경제 의존도 심화에 대비해 위안화 변동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 전이 가능성 점검이 필요하다.

1. 중국 위안화 국제화 가속

○ 최근 중국 위안화가 지급결제 통화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정부의 위안화 국제화 정책 추진 지속으로 국제화 가속

- 최근 위안화가 세계 5대 지급결제 통화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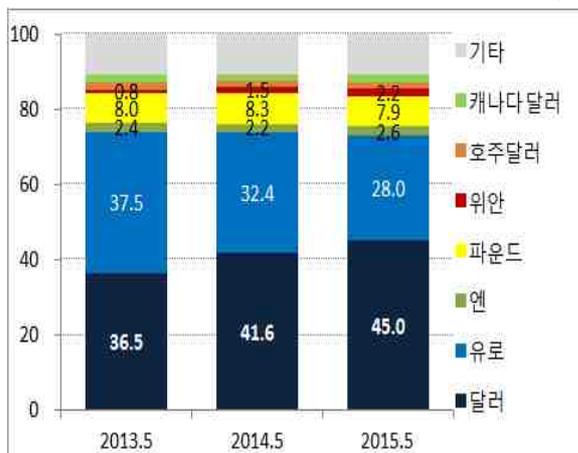
- SWIFT Watch(2015.6)에 따르면, 위안화는 지난 2013년 5월 세계 지급결제 통화중 약 0.8%로 전체 통화 중 13번째로 많이 결제
- 2015년 5월 현재, 동기준 위안화는 2.2%로 달러 45.0%, 유로화 28.0%, 파운드 7.9%, 엔화 2.6%에 이어 세계 5대 국제 지급결제 통화로 부상

- 중국정부는 '09년 위안화 국제화를 공식화한 이후 무역결제 확대, 자본계정 개방, 금융안정성 강화 등 국제화 조건을 점진적으로 수행

- 최근 중국정부는 기업의 위안화 무역결제 허용, 국가 간 통화스왑 확대, SDR 편입 추진 등 위안화 유동성 확대를 위한 조치 가속
- 또한, 예대금리 자유화 강화, 예금보호제도 마련, 상해자유무역지대 내 위안화 자본항목 개방 등 위안화 국제화 인프라 구축 지속 추진

○ 이에 따라 최근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적 변화 특징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세계 주요통화의 지급결제 비중 >
(%)



자료 : SWIFT Watch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SWIFT는 전세계 10,800개 금융사를 회원으로 금융통신 플랫폼 역할을 하는 일종의 협회.

<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정책 >

구분	관련 조치 및 정책
위안화 무역결제	·'09.7: 상하이 등 5개 시범도시 허용 ·'11.3: 전국 확대 ·'12.3: 모든 기업에 허용
자본계정 개방	·'13.7: 대출금리 자유화 ·'15.5: 예금금리 상한 확대
통화스왑	·'14.12: 28개국과 3조 위안 이상 체결
상해자유 무역지대	·'13.7: 위안화 자본항목 개방 시범지역
금융안정성	·'15.5: 예금보험제도 시행
SDR 편입	·'15년 연내 SDR 편입 결정

자료 : 중국인민은행 등 내외신 자료로 현경연 정리.

2. 위안화 국제화 정책 평가와 전망

1) 위안화 국제화 점검

① 위안화 결제 : 무역 및 투자 결제 급증

- 중국정부는 '09년 위안화 무역결제 허용을 시작으로 '11년 무역결제 및 직접투자에
서 지역 및 대상을 모두 개방하면서 위안화 국제화 기본 여건을 마련
- 위안화 무역결제는 2009년 5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2012년까지 지역
및 대상기업 범위 제한을 모두 개방
 - 2009년 4월, 상하이 등 5개 지역에서 영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홍콩, 마카오, 아
세안 10개국과의 위안화 무역결제를 허용
 - 2011년 6월에는 시범지역을 20개 도시로 확대하다 2011년 8월 지역제한을 폐지
 - 한편, 수출업체 제한도 2010년 11월 대폭 확대조치를 한 후 2년 만에 모든 수출업체
에 대한 위안화 무역결제를 허용
- 한편, 국내 및 해외 직접투자에서 위안화 결제도 가능한 조치 시행
 - 2011년 1월 베이징, 톈진 등 16개성을 대상, 해외직접투자 시 위안화 결제를 허용
 - 동년 10월에는 외국인직접투자 시 위안화 결제를 허용, '13년 9월에는 외국인의
M&A 등에도 위안화 사용을 허가

< 위안화의 무역 및 직접투자 결제 조치 >

구분		세부 조치
무역 결제	2009.07	· 상하이, 광저우, 선전, 동관, 주하이 등 5개 지역에서 무역결제 허용
	2010.06	· 시범지역을 베이징 등 20개 도시로 확대, 외국의 모든 지역제한 폐지
	2010.11	· 시범 수출업체 365개 → 6만 7,359개로 확대
	2011.08	· 중국내 무역결제 지역제한 폐지
	2012.06	· 상품·서비스 무역에 종사하는 모든 수출업체에 대해 무역결제를 허용
직접 투자	2011.01	· 16개성(省)을 대상으로 시범도시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Outbound) 직 접투자 시 위안화 결제 허용
	2011.10	·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내 직접투자에서 결제 허용
	2013.09	·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내 법인설립, M&A, 지분투자 시 위안화 사용 허가
	2014.11	· 다국적기업의 크로스보드 위안화 캐쉬풀링(Cash Pooling) 업무 일부 허용

자료 : 중국인민은행(2015), “人民幣國際化報告” 자료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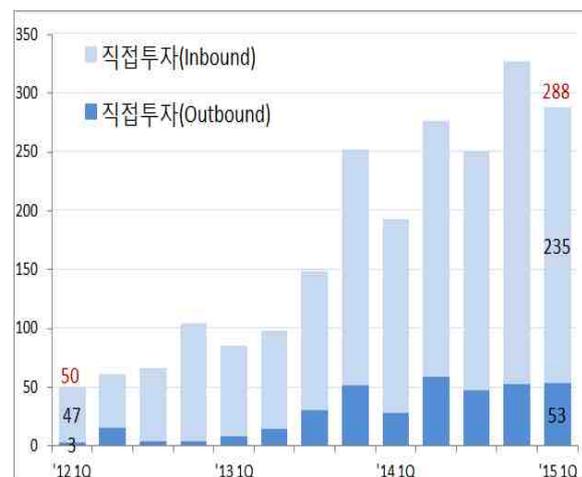
- 이에 따라, 위안화 무역결제는 2009~2014년 약 480배 급증하였으며, 직접투자 역시 지난 3년간 6배 증가하는 정책 효과가 가시화
- 2009년 위안화 무역결제가 허용된 후, 중국의 위안화 무역결제는 20분기 동안 481배 급증
 - 위안화 무역결제 규모는 2009년 4/4분기 36억 위안에서 2012년 2/4분기 6, 716억 위안으로 연평균 약 49% 급증
 - 위안화 결제 규제가 완전히 개방된 2012년 3/4분기부터 2015년 1/4분기까지 연평균 약 8%씩 꾸준한 성장세 지속
- 한편, 위안화 직접투자¹⁾도 2011년부터 In-Out 모두 개방한 이후 12분기 동안 약 6배 증가
 - Inbound 기준, 위안화 직접투자는 2012년 1/4분기 470억 위안에서 2015년 1/4분기 2,350억 위안으로 12분기 동안 5배 증가
 - Outbound 기준으로는 동기준 30억 위안에서 530억 위안으로 약 18배 급증
 - 이에 따라, 전체 위안화 직접투자는 동기준 500억 위안에서 2,880억 위안으로 5.8배 증가

< 위안화 무역결제 비중 추이 >
(십억 위안)



자료 : CEIC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월평균 위안/달러 환율로 환산.

< 위안화 직접투자 결제 추이 >
(%) (십억 위안)



자료 : CEIC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직접투자는 Inbound+Outbound 합을 의미.

1) Outbound 기준, 위안화 직접투자 결제는 2011년 1월 중국정부에서 허가.

② 자본거래 개방: 외국인 금융자산 확대

- 중국정부는 최근 금리 자유화, RQFII 등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자본시장 개방화 플랜을 가속
 - 중국은 2002년부터 외국인 및 자국내 기관투자자에 대한 주식 및 채권투자를 허용하는 등 자본시장 개혁을 단행
 - 2002년 외국인 기관투자자에게 A주 시장을 개방하고, 2006년에는 중국 본토 기관 투자자에게 해외 주식 및 채권 시장 투자를 허용
 - 2011년에는 외국인이 위안화로 중국내 주식,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위안화역외적 적외국인투자자(RQFII) 제도를 추진하는 한편 동년 해외투자 시 중국 본토은행의 위안화 대출을 허용
 - 최근에는 후강통 등 홍콩을 통한 자본시장 개방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환율 및 금리 등에서도 위안화 국제화를 조건을 강화
 - 2014년 10월 홍콩과 상하이 간 기관 및 개인 투자자에게 상호간 주식투자를 허용했으며, 2015년에는 4월 1인 1계좌 정책을 완화하고 5월에는 역외 위안화 청산은행 및 역외은행에 대한 채권구매를 허가
 - 또, 2013년 7월 대출금리 자유화에 이어 2015년 예금금리 자유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2014년 3월에는 상하이자유무역지대 내 외화예금 상한도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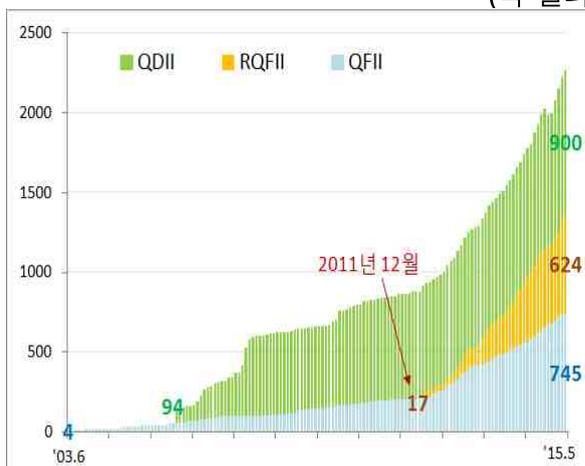
< 최근 중국 자본시장 개방화 조치 >

구분		조치 내용
자본 거래	QFII	·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의 A주 투자 허용('02.12)
	QDII	· 중국 적격국내기관투자자의 해외주식, 채권 투자 허용('06.04)
	RQFII	· 향후 적격국내개인투자자(QFII2)의 해외주식 및 채권 투자 허용 예상
		· 외국인 위안화로 중국내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투자 허용('11.12)
	후강통(沪港通)	· 홍콩↔상하이 기관 및 개인 투자 허용('14.10)
	증권계좌	· A주 시장 내 개인투자자 대상, 1인 20개의 증권계좌 허용('15.4)
대출 업무	은행간 채권시장	· 역외 위안화 청산은행과 역외은행의 채권구매 허가('15.5)
	은행 대출	· 해외투자 시 중국 본토은행의 위안화 대출 업무 허용('11.10)
대내외 금리	비은행 대출	· 비금융기관의 위안화 역외대출 및 담보 허용('13.07)
	환율	· 달러 대비 위안화 일일 변동폭 ±1% → ±2% 확대('14.03)
	예대금리	· 대출금리 자유화('13.07)
		· 상하이자유무역지대내 소액 외화예금 상한 폐지('14.03)
		· 예금금리 상한선을 예금기준금리의 1.3배 → 1.5배로 확대('15.05)

자료 : 중국증권업협회, 중국인민은행 등 자료 정리.

- 최근 QFIL, RQFII 등 외국인에 대한 자본투자 허용액이 지속 증가하면서 중국내 외국인의 금융자산이 증가하는 양상이 지속
- QFIL, RQFII 등 외국 기관투자자의 중국내 투자 쿼터를 지속 확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 본토 기관투자자의 해외진출도 가속
 - 외국인의 중국본토 주식 매입을 허용하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 쿼터액은 2012년 개설 후 2003년 6월 4.3억 달러에서 2015년 5월 745억 달러로 약 173배 급증
 - 또, RQFII 쿼터액도 제도 도입시기인 2011년 12월 17억 달러에서 2015년 5월 624억 달러로 약 37배 급증
 - 한편, 2006년부터 중국본토 금융기관의 해외투자를 허용하는 적격국내기관투자자(QDII) 쿼터도 2006년 94억 달러에서 2015년 5월 900억 달러로 10배 증가하는 등 자본거래 확대 여건 지속 개선
- 아울러 2011년 RQFII 제도에 따른 외국인의 중국 금융자산 보유가 지속 확대
 - 외국기관 및 개인의 위안화 주식 및 채권 자산 보유액은 2013년 12월 각각 3,450억 위안, 3,990억 위안에서 2015년 4월 각각 6,440억 위안, 7,350억 위안으로 16개월 동안 약 2배씩 증가
 - 한편, 위안화 대출 및 예금 자산은 동기간 각각 5,310억 위안, 1조 6,050억 위안에서 각각 8,740억 위안, 2조 1,530억 위안으로 각각 1.6배, 1.3배 증가

< QDII, QFII, RQFII 쿼터액 현황 > (억 달러)



자료 : CEIC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누적 쿼터(Accumulative Quota) 기준.

< 외국인의 중국 위안화 금융자산 보유액 > (십억 위안)

구분	2013(A)	2014		2015(B)	A/B
	12월	4월	12월	4월	
주식	345	334	556	644	1.9
채권	399	531	672	735	1.8
대출	531	778	819	874	1.6
예금	1,605	2,009	2,372	2,153	1.3
전체	2,880	3,652	4,418	4,407	1.5

자료 : CEIC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1) 외국기관 및 개인 기준.
2) 대출은 중국기업이 외국기관에서 빌려온 자금 혹은 중국내 외국기업이 외국에 있는 모회사로부터 조달한 자금.

③ 외환거래: 점진적 개선

- 최근 중국정부는 위안화 통화스왑을 지속 확대하는 등 위안화 거래 여건을 개선할 뿐 아니라, 환율 변동폭 확대 등 점진적인 외환시장의 개방화를 진행
 - 2008년 이후 위안화 통화스왑이 국가별로 지속 확대 되는 등 전세계 외환시장에서의 거래 여건 개선 지속
 - 2015년 5월까지 중국의 위안화 통화스왑 국가는 한국, 홍콩 등 총 28개국이며, 국가 중에는 홍콩이 4,000억 위안으로 가장 높은 수준
 - 이에 따라 동시점 위안화 통화스왑은 약 3조 위안으로 중국 외환보유액(2015년 3월 기준)의 13% 수준
 - 더욱이 덤섬본드 발행, 달러 대비 위안 환율 변동폭 확대 등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방정책을 진행
 - 2010년 본토 비금융기기관의 홍콩 내 덤섬본드 발행을 허용한 후 2014년에는 외국계은행에게도 덤섬본드 발행을 허용
 - 한편, 미 달러 대비 위안의 일일 변동폭을 2010년 $\pm 0.5\%$ 로 확대한 후 2014년에는 $\pm 2.0\%$ 로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환율시스템 개혁을 단행
 - 2015년 1월부터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은행 간 외환시장을 개방하는 등 외환시장 개방화가 지속

< 위안화 통화스왑 현황 >

구분	국가 및 규모
2008	· 한국(3,600)
2009	· 홍콩(4,000), 말레이시아(1,800), 벨라루스(200), 인도네시아(1,000)
2010	· 아이슬란드(35), 싱가포르(3,000)
2011	· 뉴질랜드(250), 우즈베키스탄(7), 카자흐스탄(70), 태국(700), 파키스탄(100)
2012	· UAE(350), 터키(100), 호주(2,000), 우크라이나(150)
2013	· 브라질(1,900), 영국(2,000), 헝가리(100), 알바니아(20), EU(3,500)
2014	· 아르헨티나(700), 스위스(1,500), 스로문키(100), 러시아(1,500), 카타르(350), 캐나다(2,000), 몽골(150)
합계	· 총 28개 국가 지역과 3조 1,182억 위안

< 중국의 외환시장 개방 정책 >

구분	개방 정책
2008년	· 외환집중제도 폐지
2010년	· 본토 비금융기기관의 홍콩 내 덤섬본드 발행 허용 · 달러대비 위안화 일일 변동폭 $\pm 0.5\%$ 로 확대
2012년	· 달러대비 위안화 일일 변동폭 $\pm 1.0\%$ 로 확대
2014년	· 외국계은행의 덤섬본드 발행 허용 · 달러대비 위안화 일일 변동폭 $\pm 2.0\%$ 로 확대
2015년	· 비은행금융기관의 은행간 외환시장 개방

자료 : 중국인민은행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정리. 자료 : 중국인민은행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정리.

주 : 1) 2015년 5월 현재까지 최초 체결시점 기준.
2) ()는 억 위안.

○ 이에 따라, 최근 위안화 채권 발행이 소폭 확대되는 등 미약하지만 외환시장에서의 위안화 거래 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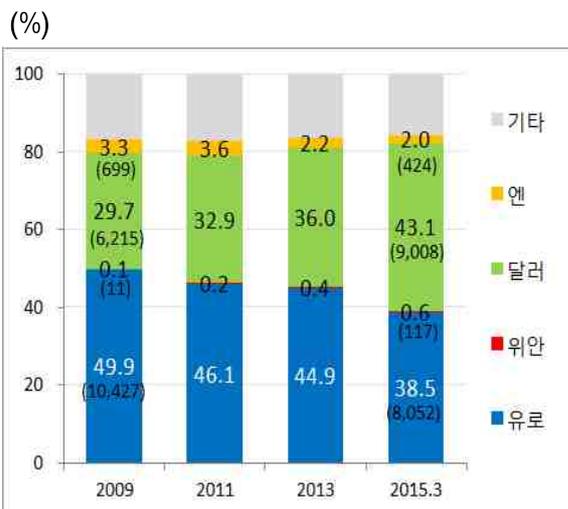
- 중국의 위안화 채권 발행이 미약하지만 지속 확대

- BIS에 따르면, 통화별 채권발행 비중은 2015년 3월 현재 미달러 43.1%, 유로 38.5%, 엔화 2.0% 등 3대 통화가 약 84%를 차지
- 위안화 채권은 발행 규모별로는 2015년 3월 기준 미달러의 1.3%에 불과하지만, 전체 통화 비중은 2009년 0.1%에서 2015년 3월 0.6%로 소폭 개선

- 장외시장에서도 위안화의 외환스왑 거래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 2013년 현재, 세계 장외시장에서 미달러의 실물거래(Spot Transactions), 선물환(Outright forwards), 외환스왑(Foreign Exchange Swaps) 등 거래는 각각 약 1.7조 달러, 약 6,000억 달러, 약 2조 달러 수준
- 위안화는 동기준 각각 340억 달러, 280억 달러, 400억 달러로 미달러의 각각 2.0%, 4.8%, 2.0%에 불과하지만 2010년보다 각각 4배, 2배, 6배 증가
- 한편, 세계 외환시장에서 위안화의 일일 평균 거래 비중도 2010년 0.9%에서 2013년 2.2%로 미미하지만 소폭 상승

< 통화별 채권발행 비중 >



자료 : BIS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주 : 1) 채권발행총액 대비 통화별 채권 발행액 비중.
- 2) BIS의 'Bonds and Notes'와 'Money Market'상의 채권발행 합계 기준.
- 3) ()는 십억 달러 기준.

< 장외시장에서 통화별 거래 현황 >

(십억 달러)

구분	2010			2013		
	미달러	유로	위안	미달러	유로	위안
실물거래	1,188	691	8	1,691	754	34
선물환	392	150	14	588	178	28
외환스왑	1,600	610	7	2,030	766	40
통화스왑	-	-	-	50	18	0.5
FX옵션	-	-	-	293	70	17

자료 : BIS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주 : 장외시장(OTC)이란 거래소시장 밖에서 유가증권의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을 의미.

④ 위안화 역외인프라 구축 가속

- 최근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을 대폭 확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을 통해 위안화 역외 인프라 구축을 가속
 - 위안화 청산은행, RQFII 허가 등을 통해 2014년 이후 위안화 역외 인프라를 대폭 강화
 - 2003~2013년까지 홍콩, 마카오, 대만, 싱가포르 등 중화권 지역을 중심으로 역외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을 마련
 - 2014년부터 유럽, 북미 등 지역으로 확대, 2015년 5월 현재, 총 16개 국가에 위안화 청산결제 은행을 설치
 - 더욱이 12개 지역을 중심으로 RQFII를 승인함으로써 위안화 역외 인프라를 구축
 - 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추진하는 등 위안화 역외 수요 확대 여건 개선 추진
 - 2013년 최초로 제기된 AIIB를 2014년부터 추진하여 2015년 4월 15일까지 총 57개 회원국을 확보하는 등 위안화 역외 수요 확대 여건을 개선

< 세계 위안화 역외센터 현황도 >



자료 : 중국인민은행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작성.

⑤ 위안화 국제통화 진입 가능성 확대

○ 최근 중국의 경제규모 및 위안화 자유태환 등 SDR 편입 조건이 지난 2010년 보다 개선되면서 올해 SDR 편입 가능성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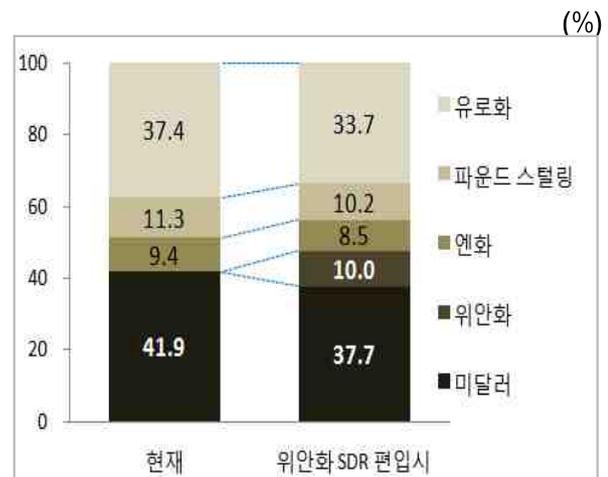
- 중국은 2014년 현재, 지난 2010년과 비교해 경제규모, 위안화 무역결제 비중이 크게 상승하는 등 SDR 편입²⁾ 가능성이 확대
 - 중국은 세계 GDP대비 비중, 세계 무역 비중 등 경제규모가 2010년 각각 9.2%, 9.7%에서 2014년 각각 13.4%, 11.3%로 지속 확대
 - 위안화 자유태환도 2010년에는 불가능했으나, 2013년 7월 상해자유무역지대 내에서 자유태환을 일부 허용
- 향후 중국 위안화의 SDR 편입시 SDR 통화 중 10% 차지할 것으로 추정
 - 현재 IMF의 특별인출권(SDR, Special Drawing Rights)의 구성 통화 비중은 美달러 41.9%, 유로화 37.4%, 영국 파운드 11.3%, 엔화 9.4% 순으로 높음
 - 향후 위안화가 SDR로 편입할 경우, 美달러 37.7%, 유로화 33.7%, 영국 파운드 10.2%, 위안화 10.0%, 엔화 8.5% 등으로 위안화가 4대 통화로 부상 가능성이 확대

< 중국의 SDR 편입 조건 비교 >

구분	2010년	2014년
세계 GDP 중 비중	9.2%(세계 2위)	13.4%(세계 2위)
세계무역 중 비중	9.7%(세계 2위)	11.3%(세계 1위)
위안화 자유태환	불가능	상해자유무역지대 내에서 허용
위안화 무역결제총무역	2.7%	24.7%
SDR 편입	실패	가능성 확대

자료 : IMF, WTO, 중국인민은행 등 자료로 현재 대경제연구원 자체 평가.

< IMF의 SDR 통화 구성 비중 >



자료 : IMF & AXA IM Research 자료로 현재 재구성. 주 : SDR 편입시 예상 비중은 각 통화국가의 무역결제를 바탕으로 추정됨.

2) SDR 편입 여부는 5년마다 IMF 회원국 188개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세계에서의 GDP 수준 및 무역 등 경제규모뿐 아니라 자유태환을 고려하여 선정. 한편, 위안화 SDR 편입은 2015년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

2) 종합평가 및 전망

- 최근 결제통화 지위뿐 아니라, 역외인프라 구축, 국제통화 진입 시도 등 위안화 국제화 조치로 향후 위안화가 투자 및 보유통화 진입 가능성이 확대
- 위안화의 무역 및 투자결제뿐 아니라, 금리자유화 등 자본거래가 개방을 위한 정책적 조치가 가속
 - 2009~2014년 위안화의 무역 및 투자결제가 각각 480배, 6배 증가하는 결제통화로서의 입지가 강화
 - 또, QFIL, QDII, RQFII 등 자본시장 개방화가 가속되면서 외국인의 위안화 자산이 증가하면서 투자통화로서의 입지도 지속 확대
- 한편, 최근 청산결제은행 지정, RQFII 부여 확대뿐 아니라, AIIB 출범, SDR 편입 등 위안화 역외수요를 지속 확대
 - 2015년 5월 현재, 16개국으로 확장하고 있는 청산결제은행 지정 등이 최근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AIIB 57개 회원국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 또, 연내 위안화의 SDR 편입이 성공할 경우, 향후 위안화가 전세계 보유통화로의 부상도 예상됨

< 위안화 국제화 점검과 전망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작성.

3. 시사점

- 최근 중국의 위안화가 무역결제 통화 뿐 아니라 SDR 편입 여부에 따라 투자 및 비축 통화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에 따른 적극적인 기회활용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 첫째, 역외 위안화 금융허브 마련을 위한 전략 구상 필요
 - 최근 위안화 국제화가 결제통화에서 투자 및 비축통화 단계로의 진입이 가속화 되므로 역외 위안화 취급에 필요한 금융 인프라 구축 필요
 - 둘째, 위안화 채권 개발 등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
 - 최근 세계에서 위안화 역외센터가 지속 확대되면서 향후 위안화 허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RQFII 쿼터 부여,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 등 위안화 인프라 마련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김치본드 등 위안화 채권 발행도 적극 추진
 - 셋째, 한중간 금융 및 통상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시스템 재구축 필요
 - 역내 금융 및 통상 분야에서 위안화 수요가 증가할 경우, 양국 간 환헷지 비용 감소로 한중간 경제 동조화 심화가 예상
 - 이에 따라 한·중 FTA 기회활용 전략을 국내에서 위안화 수요 증대를 감안한 금융 및 산업통상 전략 마련이 필요
 - 넷째, AIIB 등 중국의 新실크로드 전략을 활용해 아시아 인프라시장 진출 모색
 - 중국정부는 올해 출범을 목표로 하는 AIIB 등 新실크로드 전략을 통해 凡아시아 권으로 위안화 수요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국내 위안화 역외 인프라를 활용하여 AIIB를 건설, 장비, 조선 등 우리의 아시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로 활용 필요
 - 다섯째, 국내에서의 위안화 수요 확대에 따른 중국경제 의존도 심화에 대비해 위안화 변동성 확대 리스크 전이 가능성도 점검 필요
 - 향후 위안화가 SDR로 편입될 시 국내에서의 위안화 표시 자산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른 원화의 상대적 지위 하락이 전망되는 만큼 가상적으로 위안화 사용에 따른 외환시장의 충격 시뮬레이션을 가동해 사전적인 검토 필요

경제연구본부 한재진 연구위원 (2072-6225, hzz72@hri.co.kr)
정민 선임연구원 (2072-6220, chungm@hri.co.kr)